

휘발유 가격 사상 최고기록 행진

석유공사, 11월 셋째주 평균가격 1616.66원 ... 전국적으로 1600원 넘어

국제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의 사상 최고행진도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11월23일 전국 11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석유제품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주 리터당 1600원 선을 돌파한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1월 셋째주(11월 19-23일) 다시 12.79원 올라 리터당 1616.66원을 기록했다.

서울이 전주보다 14.28원 상승한 1676.75원을 기록했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북과 경북을 제외한 시·도가 리터당 1600원선을 넘어섰다.

시차를 두고 국내 유류가격에 영향을 주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첫째주 싱가포르 시장의 국제 휘발유 가격(옥탄가 92기준)은 주간 평균 배럴당 99.02달러로 전주보다 3.89달러 치솟았고 일별로는 11월21일 102.16달러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11월 둘째주 리터당 1400원 선을 처음 넘어선 경유가격도 11월 셋째주 다시 15.18원 뛰어 1417.15원을 기록했고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도 전주대비 각각 23.11원, 25.74원의 상승폭을 보이며 166.93원, 174.84원까지 상승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3>